

憤氣撐天

「(성경:잠언16장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실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憤氣(憤) 지(氣)행(行)이라는 말이 고서에 있습니다. 분노(憤)는 화(火)의 하늘을 찌를 듯 거칠게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간 장수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용맹한 장수가 불타는 적기심을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 갈 뿐 분기행하여 나아간다고 합니다. 성난마음 때문에 불꽃을 가지지 않고 창과 칼을 들고 뛰어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기행한 자가 온유한 사람에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三國志(삼국지)에 보면 옛날 중국에서 초와 한나라가 싸울때 분기행한 장사 한수가 여러개만 보이던 유방에게 패하였습다. 자기의 분노를 못이긴 까닭으로 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성경(잠언)에서는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요, 즉,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하늘까지 찌를듯한 그 뾰족한 것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고 끝내 패배합니다. 이는 엄청난 단타까운 일입니다. 성난다는 것은 짜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난다는 행이라 “파괴적노마의” 본 뜻은 곁에 있는 것을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있는 자에게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화를 내곤 하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상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화를 내면 부부사랑에 금이가게 마련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가시돌린 발로 자

존심을 상하게 하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성(火)냄으로 막아잡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이전에 가장 먼저 해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유명한 의학자는 학술회의에서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발표한 학설을 남들이 비판하니깐, 그 분노(火)를 참지 못해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학자는 자기 학설을 죽음으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자신을 결국 사랑하는 길입니다. 분노는 자기자신과 남을 찌를 뿐 만 아니라 하늘도 찌릅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서 발산이 되지만 그 날카로운 송곳은 남을 찌르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하나님을 거스르고 켜켜이 됩니다. “예배소”에 기록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한평생 성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



이영경 장로
순천직장교회
축천직장교회
연립회 중경회장

시인의 마음

사랑해야 할 이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입구에 젊은 부부가 하는 과일 가게가 하나 있다. 가게를 시작할 땐 행운도 없더니 2년도 안된 지금은 가게 자체가 그런 대로 틀어 잡혀 있을 것 보면 이제는 돈도 좀 벌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부부간의 장사속이 어찌 그리 다를 수가 있을까? 과일을 사러 가면 남자는 좋은 것부터 골라 주는데 여자는 나쁜 것부터 주는 것 같다. 이것도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오랜 기간을 지나오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붐빈다. 아마도 여자는 나쁘고 상한 것부터 빨리 팔아야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 그리지 않았을까 싶지만 사가는 쪽은 나쁜 것만 가져가니 이 집 과일 전부 모두 나쁜 과일이 되고 만다. 상차 안의 과일이 어찌 다 걸을 수가 있을까? 개중에는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파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들을 좋게 또는 나쁘게 만들고 만다. 좋은 것부터 팔기 시작하면 천부가 좋은 과일이 되고 나쁜 것부터 팔기 시작하면 천부가 나쁜 과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은 바로 남을 배려하는 생각에서 시작될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남의 배려로 여기까지 살아 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인생에 있어 궁극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한다. 다만 인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세속에서의 행복의 기본조건 요건은 “건강과 물질과 친구”라고도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 우선 살아 있어야 하니 건강이 제일이고, 먹고 살기가 곤란해서도 안되니 물질 또한 필요한 만큼 있어야 하며,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있으니 마음을 주고받을 적당한 친구는 물론

어 보나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에 어느것 하나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부터 보자. 보통 사람들의 건강은 제가 할 탓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우선 약과 의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 약은 또 누가 만들고 의사는 누가 길러내고 있는가? 많은 제약회사와 많은 의과대학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담금질 경험자들이다. 물질은 또 어떨까? 먹는 것은 물건의 수많은 농부들이, 쓰는 것은 수많은 공장의 공인들이 애써 만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쓰며 산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다. 마음부터 찾아야 친구가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기본적인 요소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이처럼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또 실제로 받고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이 결코 거칠어 지어지는 안된다라는 것을 정말 두루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일단 모르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잘났다는 자만에만 빠져있다. 하나님이다. 큰 것 다 제쳐두고 사랑부터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도 싶다. 사랑은 또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다.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말이다. 사랑이 또 배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해를 살아야 한다. 연말이 되어 두손을 모으고 굶어 앉아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어야하는 기도를 미리 생각해 보면서 새해에는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꼭 찾아 나서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장광수 수필가
전, 강원도의회
전문위원

레크레이션

‘부모의 신뢰 · 교사의 지도’가 최고 예방책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를 둔 다섯 가정 중의 하나에서 인터넷은 이미 부모의 애물단지이다. 하루 평균 3시간씩 인터넷에 접속하는 중·고등학교생이 70만명에 달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인터넷 중독’으로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이 현저히 약하고 사용을 금지할 경우 심리적 혼돈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위험한 만연한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현상 자체보다도 걱정되는 점은 우리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이다. 국제전쟁에서 정보와 사찰정보도 격렬하게 쟁탈되는 것, 정보와 우리의 삶에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눈길을 준 적이 없었으니 놀라운 일도 아니다. 다음 몇 가

지 점은 정책당국자, 교사, 부모, 사업자들이 인터넷 중독에 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문제를 상식에 의거해 해결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중독이 치료되기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그 문제를 정책당국이나 부모가 인지하게 대처한다는 데 있다. 흔히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시간대 유익이나 현실도피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생활감을 맛보며, 정신적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인터넷 중독에 대책을 세우기 전에 우선 정부, 학계, 기업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연구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녀와 대화를 통해 인터넷이 자녀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의 연구와 임상 결과는 인터넷에 깊이 빠진 자녀에게 부모가 무작정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경우 부모는 먼저 자녀의 입장을 귀담아 들은 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인터넷 중독의 해결은 언제나 술을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접근하면 안될 것 같다. 둘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지도하는 데 있어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생활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현행 인터넷 교육이 대폭 개편되거나 보강되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상담 클리닉을 전국 여러 곳에 설치하여 인터넷 사용에 관해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과 그 부모

가 전문적인 임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사회적 예방책을 세우더라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완전히 막을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뢰와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러므로 자녀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엿보이면 바로 학교의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 있어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해법은 어른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암시한다(한양대 정보사회학과 윤영민 교수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세).



정진한 장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회원)
강원도청장(위원장)

간증

길고 지루한 터널 (마지막회) 그곳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

■**황희의 기도와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다짐하다.**
7일 금요일에 풀린 나는 8일이 되는 날 아침과 점심에 미용실을 다녀오는 죽을 먹으므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11시, 15시, 19시 예배시간에는 또다시 절회개와 감사의 눈물과 함께 삼키진 얼굴로 찬양을 뜨겁게 기도를 우렁차게 할 수 있었다. 수능 같은 육신적인 미용만 들어가고 에너지가 소생되고 팔을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스림에 체했다. 한 2-3일 정도 보신한 후에 하산하러 갔으나 주말과 주일의 식당사정으로 먹고 싶을 때(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는 불편함과 그리고 금식적 없이 장기간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담스러워 빨리 하산하고 싶었다. 9일에

인 10월 27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기도원에서 마지막 식사로 죽 한 그릇 먹고 13시경 출발하여 14시경에 귀가했다. 당초 목표했던 기도제목에 대하여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사할 할 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풀아나갈 것 한 길과 지루한 터널을 통과(하나님의 비밀의 깨달음)하고 보니, 직장을 조금 빨리 정리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다. 고난의 시간속에서 잠시 방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 고통의 2년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철저히 매어 달리지 못하고 일순간 그것(직장과 가정)을 잊어 버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하거나

을 피해 버리고 했던 것이 부끄러울 뿐이며 하나님께 작정기도 한답시고 날마다 채우려고 했던 형식적인 기도, 직장의 일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담, 그리고 계속된 가정생활의 좌절은 내게 나의 육적인 근심 걱정을 더하게 했고 답답하기만 했다. 지금도 가정문제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복회자 사역을 하고 있는 가족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제 나도 생애에 매여 사는 시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교활동을 좀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선교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공부와 필요한 물질들이 부족한 자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 보일지 심히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다거나 그러지는 행위를 한다면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꼴이 될 테니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우고 기도할 뿐이다. 성경말씀 중에 대대의 의인인 욥처럼 다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곳에서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작정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었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오히려 생생한 간증거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금 감사한다. 비록 나는 기도가 부족하고 아직 믿음의 적용이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써 언제, 어느곳, 어떠한 위험이 있는 곳에서라도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10월 30일부터 오랫동안 있어 두었던 성경보고 회기와 기도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작정일로 미루어왔던 통신과 정신적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의 지체로운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마다 그 사랑의 손길을 전달

할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실 것과 가정(가족관계) 문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주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 지금도 가끔 접어오는 위장의 쓰러짐과 가슴앓이를 겪으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겪었던 그 고통이 주님의 치료의 광채와 함께 내 마음편에 새겨지길 원하며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의 성호를 높이 높이 찬양하리라.
아멘.



김명명 안수집사
강원도청
기독교직장교회

도 종합시험연구센터 직장선교회 창립

- 보건환경 가족위행 특화작목 개발 협력 -

강원도종합시험연구센터는 보건환경 연구원과 가족위행특화작목개발사업이 하나의 직장으로 통합을 계기로 별도의 기독교장신교회를 창립하고 춘천시 신북읍 신원리 727에 위치한 종합시험연구센터에서 12월 17일 오후 5시 30분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24명의 창립회원과 춘천직장선교회연합회 도 본회 직장선교회원 다수가 모여 하나된 앞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선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첫걸음을 시작했

다 이날 창립예배는 추후 공영준 집사의 사회로 선교부장 최근을 집사 대표기도, 박영학 집사 성경봉독, 임원들의 특별찬양, 도 본회 선교회장 최형선 장로의 인사말씀과 연합회 대표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말씀을 전한 조준환 목사는 "생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며 다스릴 대상이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신세를 드리는 기독교인다운 삶

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강원도종합시험연구센터직장선교회가 도청선교회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창립할 수 있었던 것은 도청 임원들의 협력과 직장선교회를 통해 직장인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명무실 또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춘천지역의 모든 직장인선교회원들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 좋은 꽃망울과 열매를 맺는 모범적인 선교회로서 하나된 앞에 영광을 드리

수 있는 선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회장 신영규집사(춘천동부장로교회)
▲총무 공영준집사(남춘천감리교회)
▲선교부장 최근집사(예인교회)
▲장기수집사(춘천중앙감리교회)
▲박영학집사(춘천은누리장로교회)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직장선교회
연락처: 017-370-8537 공영준 집사

이웃과 함께한 화요마을 성탄

- 70인의 행려자·독거노인과 함께한 감사예배 -



사공정 목사
춘천중앙장로교회

춘천중앙장로교회(사공정 담임목사)는 온누리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파하고자 지난 12월 24일 본 교회 1층 교육관에서 춘천지역에 산재한 행려자와 독거노인 70여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했다. 교회 여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만찬을 나누고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초대받은 분들은 부부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며 따뜻한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 있었고 만찬 후, 함께 성탄예배를 드릴 때 모두 숙연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외된 분들의 열어붙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왕치된 땅에 주어진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으로 인해 따뜻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성탄이 되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배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표준세번역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성시만평



직장선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춘천중학교



김진호 회장

제일성결교의 박상철 목사님께서 내교하여 저희 모임을 위하여 애써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의 초청 설교를 들으며 신우회와 병행과 경제성, 그리고 학교에서의 기독교사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한 동안 로마서,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요즘에는 이은미 회원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만든 교재를 선택하여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금년도 2학기 인사 발령에 믿음이 좋으신 이흥수 교장선생님이 이곳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기독교 믿는 교장 선생님께서 오시기에 기도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오시자마자 신우회에 가입하시고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시어 적극 지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 만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 측에서 신우회 선생님들이 참가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지난 2001년도 춘주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보리라(기독교사의 노래)"를 합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일부 학부모께서는 감탄하시며 저희 모임을 격려하는 경우도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학교축제에,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성경연구반, 가스컴퓨터부기반으로 활동하던 학생들이 연합하여 "기대"라는 찬양으로 노래와 율동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신우회 선생님들도 참가하여 "터", "당신을 향한 노래"를 부르며 손을 들어 학생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 우리 아들이 다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에는 신우회 선생님들이 이끄시는 특활부서가 두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70여명이 소속하고 있으며, 토요일을 이용하여 야외 활동이나 성경공부, 찬양과 율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직장선교회연합회 주관의 찬양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보리라(기독교사의 노래)" 찬양으로 2위를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러한 찬양활동을 통하여 신우회가 하나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학생의 날에는 신우회 선생님 두 분이 기독교학생만 학생들과 어려운 학생 7명을 데리고 시내 명동에 가서 피자 먹기, 기독교 서점 둘러보기, 영화감상하기 등으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그야말로 감격(?)을 했다는 표정이 역력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서점에서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김동환 전도사의 "다니엘 학습법" 등의 신앙 서적들을 사주면서, 크리스찬 학생으로서의 자긍심과 비전을 갖게 하였던 것이 정말 보람 있었습니. 이때의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때 참석하였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대견하기만 합니다. 이제 저희 신우회는 2003학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우회 모임이 더욱 개방적이

※춘천중학교직장선교회 연락처:
016-364-6690 조경화 안수집사(춘천직장선교회연합회 총무)

재단법인 한국대학생 선교회 부설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C.C.C.어린이집은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처럼 원아를 돌보며 풍부한 인적자원과 넓은 실내·외 전용 놀이공간, 대강당 및 4개의 교실을 활용한 최상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 ◆ 원목: 정경호 목사(춘천C.C.C. 대표)
- ◆ 원훈: 어린이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가득
- ◆ 운영이사(총사회에 의한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운영)
- ◆ 이준택장로(서울총회위원장) 조은복목사(베드로장로회와 원장) 신성근교수(강원대) 장경관교수(경원대) 장관집사(아이마당어린이집) 장기영집사(간원일보) 이길호집사(조흥은행지점장) 유영림집사(영원육지(사우어)어린이집장)
- ◆ 교사: 연령별 4개반 구성/ 각 수년에 알맞은 언어, 수, 과학, 음악, 미술, 신체활동, 놀이학습/ 전문강사를 통한 피아노 / 미술 / 영어 / 유아체육

- ◆ 논본악사 신양교사: 주1회 어린이 제물, 굿본드 집중 교육
- ◆ 자연학습장 운영을 통한 현장체험
- ◆ 부모교육세미나 실시
- ◆ 교사: 이경연(원장) 이장순(경력10년) 백은정(경력 6년) 서지연(경력2년)
- ◆ 특기교과: 영어(전문강사초빙) 태권도(박신환/국가대표출신) 피아노(이경연/강사경력10년)
- ◆ 모토교사: 신현미(강원대) 신동아(춘천교육대)

*** 원아모집 ***
오전 8시 ~ 4시 30분 (※각반별연령별 선착순)
유아반(4세) 돌가반(5세) 영아반(6세)
할가반(7세)
※ 열심한, 저소득층 자녀, 활동강연
접수처:
033/255-5776 / 254-5776 C.C.C.어린이집



국내 최고의 목질 최고의 맛! 최저의 가격! 이래! 생고기숯불갈비 뷔페

대표 윤기원·유주연
(춘천서로사랑장로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지2동 152-7
TEL.033)255-9249 / 255-9250 HP.011-371-6770
(이래뷔페 춘천세인시업본부 체인점 문의)

◆◆◆ 알로에는 자연입니다 ◆◆◆

알로에마임

기초화장품 ☆세초화장품 ☆메이크업코스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식품

대표 이관호 전사·운영 순집사

춘천시 효지3동 756-3번지 보현치정건너편
TEL.033)242-2665~6